

북한의 탈단극 인식: '다극'화와 '신냉전'

박아름(동국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탈단극 인식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하여, 최근 북한의 전략을 재검토하였다. 탈냉전 이후 등장한 다극화에 대한 북한의 '바람'은 2000년대 이후 '태동기(2000~2007)', '성장기(2008~2015)', '성숙기(2022~2024)'를 통해 지속 및 확장되었다. 북한은 다극화를 '역사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으로 주장하며, 2022년부터는 다극화가 '현실'화 된 것으로, 북한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단극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다극화를 추동하는 세력의 대립구도 속에서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북한, 탈단극, 다극, 다극화, 신냉전

* 본 연구는 "Post-Unipolar era, Post-Unification Discourse," (IARS 2025 Seoul Conference, 2025년 7월 15일)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글임. 본 논문에 유익한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B5A16007791).

I. 들어가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질서 변동에 대해 누군가는 20세기 초의 전간기를 바탕으로 '휴지기'라 제안하고,¹⁾ 누군가는 17세기에 빗대어 '신일반위기'라 명명하고,²⁾ 누군가는 반복되는 역사를 통한 '전쟁위기'를 경고한다.³⁾ 그렇다면 북한은 현재의 국제정세 흐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북한이 현재 국제정세를 인식하는 두 가지 핵심 단어는 '신랭전'과 '다극'⁴⁾이라 할 수 있다.

현 국제정세는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반동사이의 모순, 특히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력구도가 명백해지고 미국이 제창하는 일극세계로부터 다극세계로의 전환이 눈에 띄이게 가속화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⁵⁾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이 강조되었다.⁶⁾

-
- 1) 전간기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짧은 간주곡에 불과했던 것처럼, 지난 탈냉전 30년의 '좋은시절'도 구냉전과 신냉전 사이의 휴지기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차태서, 『30년의 위기_탈단국 시대 미국과 세계질서』,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4, p. 6.
 - 2) 오늘날의 위기가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헤게모니를 향한 속적경쟁일 뿐 아니라 포퓰리즘의 확산, 팬데믹, 그리고 기후위기를 망라한 총체적인 글로벌 위기라는 점에서 (카Carr 식의 위기 개념) 20년의 위기보다는 21세기 버전 일반위기(17세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신일반위기에 가깝지 않을까? 백준기, 『미국의 세기 이후_신냉전 너머의 세계 강대국들의 귀환』, 서울: 비블리오테카, 2024, pp. 31-32.
 - 3)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레이엄 앨리슨 지음 · 정혜운 역, 『예정된 전쟁』, 서울: 세종서적, 2018, 서문.
 - 4) 본 연구는 미국중심의 1극 체제가 흔들리는 현재의 국제정세를 '탈단국'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바람과 전략을 '다극화'로 명명하고자 한다.
 - 5)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2022년 9월 8일)."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 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보도" 『로동신문』 2023년 1월 1일.

‘신랭전’과 관련한 북한의 대외정책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밀착, 혹은 북중러 삼각관계에 대한 관심 속에서 분석되고 있다.⁷⁾ 한편, ‘다극’과 관련된 중국 또는 러시아의 전략은 일부 연구가 존재하지만,⁸⁾ 북한의 인식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는 러시아의 다극화 전략 속에서 북러관계를 검토하거나,⁹⁾ 북한이 강조하는 ‘다극’과 관련한 담론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것으로, 2020년 이후 김정은이 제기한 현상으로 평가한다.¹⁰⁾ 하지만 북한의 ‘다극’ 담론은 1990년대 중반에 등장했으며, 2000년 이후 『로동신문』 및 여러 기관지에 기사와 논문이 꾸준히 등장하였다. 북한이 인식하는 ‘신랭전’은 과거 북방삼각관계 대 남방삼각관계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며, ‘다극’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 협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다극’을 ‘단극’에 대항하는 국제질서 변동으로 인식하면서 새로운 ‘단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북한의 ‘다극’ 담론을 검토하여, ‘신랭전’과 ‘다극’이라는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데 일부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기관지인 『로동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주요 학술지의 내용을 보완하여 첫째, 북한의 다극화 인식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둘째, 북한 다극화 담론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째, 2022년 이후 2024년까지의 기사를 집중 분석하여 현재 북한의 전략을 재검토하였다.

-
- 7) 박영택, “남방 및 북방삼각관계의 구조화 진행과 한반도 안보 전략.” 『한국국가전략』 제4권 2호, 2019.; 김연철,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4호, 2023.; 황상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 삼각 공조의 유인과 한계.” 『아시아연구』 제27권 3호, 2024.; 이재영·홍민·현승수,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24.
- 8) 이진현, “다극 세계질서의 주체로서의 문명국가와 지정학의 문제: 러시아의 이론과 현실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34권 2호, 2024.; 김광린, “러시아의 21세기 정책구상: 강력한 러시아와 다극화 세계질서의 구축.” 『신아세아』 제7권 2호, 2000.; 김관옥, “중국의 대미균형을 위한 다극화전략: 소프트 파워, 다자주의, 자원의교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31권, 2010.; 한석희, “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외교,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 『국제지역연구』 제11권 1호, 2007.; 이동률, “중국 2024년 양화: 체제 강화, 기술 자강, 다극화.” 『EAI 이슈브리핑』 동아시아연구, 2024.
- 9) 민지영, “러시아의 다극주의 전략과 북-러 관계.” 『외국학연구』 제73집, 2025.
- 10) 차태서, “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탈단극 시대 한반도 문제의 전환과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동.” 『국제관계연구』 제28권 1호, 2023, p. 11.

본 연구는 현재 국제정세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검토하여, 이에 기반한 남북 관계 모색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탈냉전 이후 북한의 다극화 인식 및 특징

1. 『로동신문』 분석

『로동신문』의 기사 제목에서 '다극'이란 단어가 처음 검색된 것은 2000년 9월 5일이다. 『로동신문』은 “세계의 다극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라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1990년대에는 '다극'이란 단어가 들어간 제목의 기사를 발견할 수 없으며, 『민주조선』에서도 1999년 9월 29일에 처음 검색되었다. 『민주조선』은 “로씨야외무상 다극화된 세계 창설을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러시아가 유엔총회에서 ‘국제법에 확고히 기초하여 다극화된 세계를 창설할 것을 주장’했다는 짧은 소식을 전했다.

2000년 이후 2024년까지 『로동신문』에 '다극'이란 단어가 포함된 제목의 기사는 총 49개이다. 2024년이 10개의 기사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2008년과 2023년이 5개 기사로 2위, 2006년과 2011년 4개 기사로 3위, 2000년, 2003년, 2004년이 3개 기사로 4위를 차지하며 다른 연도에는 한두 개의 기사가 발견된다. 흥미로운 것은 2009년 그리고 2014년부터 2021년에는 기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¹⁾ 물론 다른 매체나 조선중앙통신에서는 발견될 수 있으며, 제목에 '다극'이 포함되지 않았어도, 내용에서는 다루었을 수 있다.

11) 2014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한 2021년까지 '다극'이란 단어가 들어간 제목의 기사가 발견되지 않는 부분은 추후 심화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표 1〉 제목에 ‘다극’이 포함된 『로동신문』 기사 수(2000~2024년)

년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계
수	3	1	1	3	3	2	4	1	5	0	2	4	1	1	0	2	0	0	0	0	0	0	1	5	10	49

49개 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극화에 대한 타국의 입장을 단 순히 전달하는 기사가 20건이며, 나머지 29건은 다극화에 대한 북한의 분석 및 지지를 비교적 장문으로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다극화에 대 한 장문의 기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기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북한 다극화 담 론의 시기를 1차적으로 구분할 것이다.

〈표 2〉 제목에 ‘다극’이 포함된 『로동신문』 기사의 주요내용(2000~2024년)

내용	북한의 분석 및 지지	타국의 입장									합계
		러시아	프랑스	남아프리카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중국	쿠바	
수	29	12	1	1	1	2	1	1	1	1	50 ¹²⁾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북한이 분석한 다극화 흐름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시기는 ‘태동기’(2000-2007년)로 다극화에 대한 북한의 ‘바람’이 드러난다. 2시기는 ‘성장기’(2008-2015년)로 다극화가 실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다수를 차지한다. 3시기는 ‘성숙기’(2022-2024년)로 다극화가 ‘현실’이라고 강조하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성숙기’에 해당하는 최근 3년 시기는 3장에서 본문에 ‘다극’이 들어간 기사를 모두 추출하여 현재 북한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유추할 것이다.

12) 하나의 기사에서 두 개 국가의 입장을 보도함에 따라 전체 기사가 49개이지만, 50개의 합계가 도출됨. “쿠바가 베네수엘라의 다극세계 창설구상을 지지.” 『로동신문』 2000년 10월 30일.

2. 북한의 다극화 인식 흐름

(1) 다극화 태동기(2000~2007년)

1시기인 '태동기'에는 타국의 입장을 주목하여 국제정세 흐름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다극'이 들어간 제목의 기사는 총 18개이며, 8개가 북한의 분석기사이고 나머지 10개는 타국의 입장에 대한 짧은 소식이다. 특징은 첫째, 주목하는 국가의 확대이며, 둘째, 주목하는 대상이 국가에서 기구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2000년 초기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를 주목했으며, 유럽을 하나의 극으로 판단했다. 이후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까지 관심을 넓힌다. 또한 초기에는 중국, 러시아, 프랑스, 쿠바 등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브릭스(BRICS),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등의 기구로 관심을 옮긴다. 2000년 『로동신문』은 세계여론의 가장 큰 관심이 '미국과 여러 대국들 간의 모순이 격화'되는 현상이라고 보도하였으며, 그 원인을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에 대한 러시아, 중국, 서방들의 반발로 설명하였다.¹³⁾ 2002년에도 2001년 발생한 9.11사건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강화되고, 유럽나라들이 미국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늘어났으며,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지역적통합과 일체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¹⁴⁾

특히 『로동신문』은 2004년과 2005년의 기사를 통해 지난시기 긴밀한 관계였던 미국과 유럽이 분열되고, 유럽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상황을 주목하면서, 유럽을 '다극세계화를 지향'하는 주요세력으로 분류하였다.¹⁵⁾ 2006년에도 유럽이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와 별개의 방위력을 구축하려고 하며, 경제분야에서도 미국에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유럽의 규모와 경제력을 제시하고 미국에 반하는 하나

13) 김남혁, "세계의 다극화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로동신문』 2000년 9월 5일.

14) 원경호, "9.11사건 후의 국제정세흐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9.11사건)과 아프가니스탄전쟁, 《반테로전》확대전략, 국제적인 반미열풍과 다극세계화의 추세)." 『로동신문』 2002년 9월 19일.

15) 조택범, "다극화를 지향하는 유럽, 그를 막아나서는 미국." 『로동신문』 2004년 1월 10일.; 본 기자, "쌍무관계발전과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하여." 『로동신문』 2004년 5월 24일.

의 극으로 평가했다.¹⁶⁾

2005년과 2006년 기사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 및 인도의 합류를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가 1990년대 말에 제기했던 것으로 현재 공동전선이 ‘실현단계’에 온 것으로 평가했다.¹⁷⁾ 2006년부터는 발전도상나라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발전도상나라들을 ‘다극세계화의 맹아’로 지칭하며, 냉전시기에도 양극구조에서 비동맹운동을 통해 진보적 발전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를 거론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분야에서 미국을 배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¹⁸⁾ 또한 상하이협력기구가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있고 권위있는 지역기구’로 발전하여, 이 기구에 가입하려는 나라들이 확대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은 이 기구에 인도, 파키스탄, 이란이 가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¹⁹⁾

(2) 다극화 성장기(2008~2015년)

2시기는 ‘성장기’로 지역협력체와 기구들의 성장을 주목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다극’이 들어간 제목의 기사는 총 15개이며, 13개가 북한의 국제정세 흐름에 대한 사설형식의 기사였다. 특징은 첫째,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기대, 둘째, 반 달러화 운동을 통한 경제적 다극화 현상 주목이다. 2008년부터 『로동신문』은 세계의 다극화 움직임을 ‘국제사회의 민주화 움직임’으로 명명하였다.²⁰⁾ 2010년 『로동신문』은 <론설>을 통해 2009년을 하나의 전환기로 보도했다. ‘2009년은 일극세계지배질서가 허물어지고 세계의 다극화가 힘있게 추진된 한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경제, 정치, 안보 상의 변화를 차례로 언급하였다. 첫째, 반달러화 흐름을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세계적인 변화’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중동, 중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로 원유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한 것을 전했다. 둘째, 유럽

16) 김영남, “다극화를 위한 유럽동맹의 움직임.” 『로동신문』 2006년 4월 10일.

17) 조선중앙통신, “다극화된 새 세계질서의 수립을 위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있는 로씨야와 중국.” 『로동신문』 2005년 12월 23일.

18) 김종순, “세계가 다극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막을수 없는 추세.” 『로동신문』 2006년 3월 4일.

19) 조성철,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로동신문』 2006년 7월 3일.

20) 조성철, “<론설> 세계의 다극화는 막을수 없는 국제적 흐름.” 『로동신문』 2008년 2월 22일.

동맹의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발효,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국제 정치무대에서의 가치 증대, 셋째, 아프리카 동맹, 남아메리카국가동맹, 상하이협력기구, 아세안 등이 방위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다극화 추세의 흐름으로 분석하였다.²¹⁾

『로동신문』은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의 확대를 받기며, 상하이협력기구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세계의 다극화 추세의 반영'으로, 브릭스가 확대되는 현상을 '서방주도의 낡고 불공정한 현 국제질서를 반대하고 다극화 세계를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으로 분석하였다.²²⁾ 2011년의 산야선언(Sanya Declaration, 브릭스 제3차 정상회의 선언문)과 2015년의 우파선언(Ufa Declaration, 브릭스 제7차 정상회의 선언문)의 내용과 의의도 자세히 전했다. 또한 G20의 등장을 '발전도상나라들이 발전된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역량으로 자라났다는 것, 몇몇 서방나라들이 세계경제를 다스리던 시기는 지나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²³⁾

2015년 『로동신문』은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 외에도 유라시아경제동맹(Eurasian Economic Union, EAEU), 아세안, 중남미통합기구(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erica, ALBA) 카리브해공동체(Caribbean Community, CARICOM) 등이 지역들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량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전하며, 결국 다극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모든 나라들의 의지를 미국이 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⁴⁾ 『로동신문』은 무엇보다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미국과 서방이 좌우지하던 낡고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가 허물어져가고있다'고 판단했으며,²⁵⁾ 미국 달러 대신 민족화폐이용이 높아지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금융체계의 다극화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 속에 적극화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였다.²⁶⁾

21) 백문규, “〈론설〉 세계는 다극화어로 나아가고 있다.” 『로동신문』, 2010년 1월 10일.

22) 조성철, “다극화추세를 반영한 움직임.” 『로동신문』, 2010년 8월 8일; 배근희,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하여.” 『로동신문』, 2011년 1월 19일.

23) 본사기자, “관심을 모으는 경제의 다극화추세.” 『로동신문』, 2012년 3월 5일.

24) 본사기자, “[정세론해설] 적극화되고 있는 다극세계건설노력.” 『로동신문』, 2015년 7월 21일.

25) 본사기자, “관심을 모으는 경제의 다극화추세.” 『로동신문』, 2012년 3월 5일.

26) 전영희, “민족화폐이용을 통해 본 금융체계의 다극화.” 『로동신문』, 2013년 11월 19일.

(3) 다극화 성숙기(2022~2024년)

3기는 성숙기로 2022년부터 2024년 시기 16개 기사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다극화 주역들의 기사내용이 구체화 되었다는 것이다. 2기 성장기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국가별, 지역별, 기구별, 분야별로 나누어서 흐름을 살펴본 것이라면, 3기에는 각각의 기구를 하나의 주제로 연혁과 변화, 의의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의 배경에는 북한이 2022년 이후의 시기를 '다극 세계가 실현된 시기' 그래서 '활력있는 흐름'으로 인식하는데 기인한다.²⁷⁾

『로동신문』은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 개별기구들을 자세히 전하면서도, 이 기구들 간의 연대가 높아지는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브릭스를 남남협조의 대표적 실례로 칭하면서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2022년 중국이 러시아에게 '브릭스체도를 남남협조의 주요무대'로 만들 것을 제안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성원국이 10개로 늘어난 브릭스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브릭스가 발전도상나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요세력이며, 그 지위가 높아질수록 세계의 구도는 다극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²⁸⁾ 특히 브릭스의 반 달러화 실천을 미국의 일극시대 종말의 근거로 보도하였다. 브릭스는 2013년 미국의 인터넷독점에 대항한 독자적인 인터넷 구축계획을 세우고, 2014년 세계정보기술시장에서 미국기업의 독점활동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모색했으며, 2015년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 해결과 발전도상나라들의 이익에 상응한 국제경제질서수립을 위해 노력할 입장을 공식표명하고, 2015년 7월 신흥경제국들과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투자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신개발은행을 설립하고 많은 대상들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9년부터 민족화폐에 의한 지불을 장려하는 독자적인 은행 간 지불체계를 구축하는데 착수하여 2023년 6월 자체의 브릭스공동화폐 도입방안을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²⁹⁾ 또한 2024년 현재 10개국으로 확대된 브릭스는 세계 육지면적의 33%, 세계인구의 46%, 세계 총 원류생산량의 거의 40%, 세계 총

27) "다극세계의 수립을 지향하여." 『로동신문』 2024년 7월 30일; "세계는 다극화어로 더욱 활력 있게 나아가고 있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25일.

28) "세계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남남협조." 『로동신문』 2024년 1월 19일.

29) "세계는 다극화어로 더욱 활력있게 나아가고 있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25일.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유력한 '다국간 기구'로 세계적인 국내 총생산액에서 브릭스가 차지하는 몫은 37%로서 G7의 해당 지표를 능가하고 있으며 유럽동맹의 경제규모를 2.5배나 압도하고 있는 '세계경제장성의 기관차'로 평가했다.³⁰⁾

둘째, 상하이협력기구에 벨라루스가 10번째 성원국으로 가입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2001년 창설된 시기부터의 연혁을 정리하였다. 현재 9개 회원국인 상하이협력기구의 면적은 유라시아대륙의 65%, 세계영토의 25%를 차지하며 인구수는 40억 명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정도이기 때문에 상하이협력기구를 국제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남아메리카공동시장에 볼리비아가 가입하려는 소식을 전하면서, 1991년 창설부터의 활동을 자세히 전하고, 2023년 볼리비아 대통령이 미국금융제도의 제한조치들을 배격하면서 남아메리카공동시장이 미국의 달러 의존도를 낮출 것을 호소하였다고 강조했다.³¹⁾ 넷째, 유라시아경제동맹이 상하이 협력기구, 아세안과 적극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2014년 창설부터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무엇보다 유라시아경제동맹국들이 무역 결재의 90% 이상을 민족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금융주권'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³²⁾ 다섯째, 아프리카 동맹 평화 및 안전이사회 창설 20주년과 집단안전조약기구의(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 유엔총회 옮겨버 20주년을 전하고 이 기구들의 활동을 다극세계건설을 추동하는 의지와 존재로 평가하였다.³³⁾

3. 북한의 다극화 인식 특징

『로동신문』기사와 주요 학술지의 내용을 통해 북한의 '다극' 인식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다극화를 '역사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인식한다. 둘째, 다극화를 추동하는 세력의 변화이다. 셋째,

30) 장철, "세계의 다극화와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은 현시대의 강렬한 지향." 『로동신문』 2024년 11월 4일.

31) "다극세계의 수립을 지향하여." 『로동신문』 2024년 7월 30일.

32) 김수진, "세계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유라시아경제동맹." 『로동신문』 2024년 10월 24일.

33) 조선중앙통신, "반제자주의 기치높이 다극화를 지향해 나가는 아프리카." 『로동신문』 2024년 11월 24일.; 장철, "평화와 다극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안전조약기구." 『로동신문』 2024년 12월 15일.

다극화의 실천 항목에서 유엔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1) 역사발전의 합법칙적 과정

북한은 다극화를 ‘역사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인식한다. 이는 북한의 공간문헌에서 ‘다극’이 발견된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일관되게 서술되고 있다.³⁴⁾ 다극화의 ‘맹아’는 1970년 이전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이 련이어 승리하고 독립국가들이 태어난 시기’에 형성되었으며,³⁵⁾ 발현 ‘조건’은 냉전 종식으로 인한 ‘힘의 공백’이고,³⁶⁾ 특징은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의 수립이다. 이러한 다극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냉전 직후부터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북한은 냉전이 종식된 후 세계가 다극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현상이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발전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정리하였다.³⁷⁾ 북한은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은 진보와 반동 간의 대결과정인데, 다극화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로, 1극화를 노리는 미국을 반동으로 규정하였다.³⁸⁾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주도한 1극의 시대를 ‘일시적인 우려곡절과 소용돌이’의 시기로 간주하고 있다.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우려곡절과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자주,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진진운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막을 수도 돌려 세울 수도 없으며 1극세계화야망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불과하다.³⁹⁾

34) 김형우, “랭전종식후 다극화되고있는 세계정세의 중요특징,” 『근로자』 5호, 1995년, p. 96.; 김남혁, “세계의 다극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로동신문』 2000년 9월 5일.; 리현도, “〈론설〉 세계의 다극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추세.” 『로동신문』 2008년 10월 12일.; 장철, “세계의 다극화와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은 현대의 강렬한 지향.” 『로동신문』 2024년 11월 4일.
35) 김중순, “세계가 다극화되어가고있는것은 막을수 없는 추세.” 『로동신문』 2006년 3월 4일.
36) 홍진철, “랭전종식후 국제관계의 다극화추세에 대한 분석.” 『정치법률연구』 3호, 2012, p. 54.
37) 김형우, “랭전종식후 다극화되고있는 세계정세의 중요특징.” 『근로자』 5호, 1995, p. 91.
38) 김남혁, “세계의 다극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로동신문』 2000년 9월 5일.
39) 원경호, “9.11사건 후의 국제정세흐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9.11사건)과 아프가니스탄전쟁, 《반테로전》확대전략, 국제적인 반미열풍과 다극세계화의 추세.” 『로동신문』 2002년 9월 19일.

세계가 다극화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며 현시대의 기본추세이다. 현시대는 세계인민들의 온갖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 것을 바라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자주성은 인간의 생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인류공동의 생명이다. 오늘 지구상에서 국제사회의 민주화와 세계의 다극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아 가고 있는 것은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의 필연적산물이라고 할수 있다.⁴⁰⁾

탈냉전 이후 다극화가 '역사발전의 방향'이라는 북한의 지속적인 주장은 마치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을 연상케 한다.

(2) 다극화를 추동하는 세력의 전이

북한이 1990년대 다극화를 미국에 대한 모든 나라들의 도전으로 가정하였다면, 2020년대에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실천으로 축소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저항을 대표적으로 기술하고, 발전도상나라들의 남남협조 강화에 따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집단화를 주목하였다. 첫째, 초기에는 다극화를 추동하는 세력에 유럽과 일본을 포함하여 '여러 자본주의 나라들의 도전적인 움직임'을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1990년대 유럽과 일본은 냉전시기 잠재했던 모순들을 표출하였는데, 1991년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Maastricht Treaty)을 체결한 것,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비 지출을 늘이고, 무역분야에서 미국의 압력에 대항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⁴¹⁾

둘째, 2000년도부터 '모든 나라'에서 일본이 제외되었으며, 2010년 이후 유럽에 대한 기대도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2000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국제반대 여론에서 '어정쩡한 태도로나마 미국의 립장에 동정을 표시한 나라는 유독 일본뿐'이었다는 기사 이후 일본의 반미 태도는 더이상 언급되지 않았다.⁴²⁾ 2010년부터 유럽에 대한 기대가 G20으로 대체되는 변화를 보인다. 특히

40) 리현도, "〈론설〉 세계의 다극화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 『로동신문』 2008년 10월 12일.

41) 김형우, "랭전종식후 다극화되고있는 세계정세의 중요특징." 『근로자』 5호, 1995, pp. 92-93.

42) 김남혁, "세계의 다극화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로동신문』 2000년 9월 5일.

세계 경제문제 결정에서 G20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⁴³⁾ 그 이유는 G20에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⁴⁴⁾

셋째, 2020년대 주요세력은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과 함께 발전도상나라들로 귀결된다. 유럽과 미국의 갈등을 주목하지만, 유럽을 다극화의 세력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초기 강대국들이 주도했던 다극화가 본인들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자,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가 날로 강화되어가는 이러한 추이속에 대국들속에서는 다극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원래 국제무대에서 다극화는 대국들이 랭전 종식후 앞장에서 제창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다극화추세가 저들의 지배주의적지위를 강화하려던 의도대로가 아니라 발전도상나라들의 국제적지위와 발언권, 영향력이 날로 높아지는데로 나아가자 지배와 예측, 강권과 전횡을 목적으로 제나라의 다극화를 주장하던 대국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게 된 것이다.⁴⁵⁾

2012년 북한은 “오늘의 시대를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진보적인민’과 자주성을 반대하는 ‘국제반동들’사이의 대립과 투쟁의 시대”⁴⁶⁾라고 정의하며, G7을 반대진영으로 규정하였다.

(3) 유엔의 개혁

북한은 1990년대부터 다극화를 통해 ‘새로운 정치질서’를 수립해야 하는 투쟁에서 유엔개편을 초점으로 주장하였다. 개편의 중심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문제였다.⁴⁷⁾ 2000년 유엔정상회담에서도 유엔안정보장이사회의 개혁문제를

43) 계문해, “현시기 《브릭스》에 의한 국제경제관계의 다극화추진.”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3호, 2012, p. 126.

44) 리태성, “새 세계 세계의 다극화과정속에서 강화되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 『사회과학원 학보』 2호, 2019, p. 31.

45) 리태성, “새 세계 세계의 다극화과정속에서 강화되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 『사회과학원 학보』 2호, 2019, p. 32.

46) 홍진철, “랭전종식후 국제관계의 다극화추세에 대한 분석.” 『정치법률연구』 3호, 2012, p. 54.

47) 김형우, “랭전종식후 다극화되고있는 세계정세의 중요특징.” 『근로자』 5호, 1995, p. 94.

‘국제사회의 민주화와 세계의 다극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도하였다.⁴⁸⁾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유엔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⁴⁹⁾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한 나라들이 유엔에서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유엔을 민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다.⁵⁰⁾ 이후에는 아프리카 등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복종하지 않을 데 대한 토의를 전했다.⁵¹⁾ 2011년 브릭스의 ‘산야선언’에서 ‘안보리사회를 포함하여 유엔의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을 전하고,⁵²⁾ 2014년 ‘포르탈레자 선언(Fortaleza Declaration, 브릭스 제6차 정상회의 선언문)’과 2015년 ‘우파선언’에서도 유엔개혁이 논의되었음을 전했다.⁵³⁾ 2024년 ‘카잔 선언(Kazan Declaration, 브릭스 제16차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도 유엔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데 대한 것을 논의한 사실을 보도하였다.⁵⁴⁾ 특히 2022년 이후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비판하며, 유엔이 ‘특정한 나라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략’했으며,⁵⁵⁾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능을 대폭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하였다.⁵⁶⁾

48) 김남혁, “세계의 다극화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로동신문』 2000년 9월 5일.

49) 조선중앙통신, “남아프리카 세계의 다극화를 주장.” 『로동신문』 2003년 10월 14일.

50) 리현도, “〈론설〉 세계의 다극화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 『로동신문』 2008년 10월 12일.

51) 백문규, “〈론설〉 세계는 다극화어로 나아가고 있다.” 『로동신문』 2010년 1월 10일.

52) “세계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브릭스.” 『로동신문』 2011년 4월 19일.

53) 김수진, “세계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남남협조.” 『로동신문』 2024년 1월 19일.

54) “세계의 다극화와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은 현시대의 강렬한 지향.” 『로동신문』 2024년 11월 4일.

55) 윤철희, 조학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것은 우리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이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30일.

56) “자주와 정의에로 향한 력사의 격류는 되돌려세울수 없다.” 『로동신문』 2024년 8월 29일.

Ⅲ. 최근 북한의 다극화 인식 및 전략

1. 『로동신문』 분석

2022년 이후 2024년까지 ‘다극’이란 단어가 내용에 포함된 기사수도 <표 1>의 추세와 유사하다. 2022년 1건, 2023년 21건, 2024년 79건이다. 따라서 다극화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3> 내용에 ‘다극’이 포함된 『로동신문』 기사 수(2022~2024년)

년도	2022	2023	2024	합계
수	2	21	79	102

기사의 내용을 검토하여 형태와 주제를 분류하면, 총 102건의 기사 중에서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기사는 71건이며, 장문의 사설 형식은 총 31건이다. 71건의 소식 중에서도 국내와 관련있는 기사는 29건, 외부 혹은 타국의 입장을 전하는 기사는 42건이다.

<표 4> 내용에 ‘다극’이 포함된 『로동신문』 기사 주제 및 빈도 수(2022~2024년)

기사 형태	주제	빈도
사설	미국비난	14
	제국주의비난	10
	서방비난	3
	민족화폐	2
	김정은찬양	1
	우주경쟁	1
	소결	31

기사 형태		주제	빈도
소식	내부	북-러 관계	11
		김정은-푸틴 서신	4
		김정은 연설	2
		김정은-타국 서신	2
		전원회의	2
		김일성서거 30주년_타국행사소개	1
		미국비난	1
		신식민주의반대모임 참석	1
		외무성대변인 성명	1
		우크라이나전쟁	1
		유엔공보위원회 회의	1
		재중조선	1
		G7	1
		소결	29
			외부
발전도상나라들의 노력	7		
브릭스 소식	6		
유라시아경제동맹 소식	3		
상하이협력기구 소식	2		
수리아 입장	1		
중국 입장	1		
집단안전조약기구 소식	1		
베네수엘라 입장	1		
벨라루씨 입장	1		
소결	42		
합계			102

첫째, 사실 형식에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을 주제로 한 기사가 14건으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제국주의와 서방에 대한 비난 기사도 다수를 차지한다. 제국주의와 서방에 대한 비난에서도 미국이 등장하지만, 제국주의와 서방에 대

한 비난 기사는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잘못보다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국의 속성 및 제국적인 국가들이 현 정세에서 '신식민지'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측면을 부각하고 이를 경계하기 위해 '다극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소식에서는 내부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관계, 외부적으로도 러시아의 입장에 관한 기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내부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관계 그리고 김정은과 푸틴의 서신 기사까지 합치면 총 15건으로 약 50%를 차지한다. 또한 외부 소식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기사가 19건으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발전도상나라들의 노력과 브릭스 소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짧은 기사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으로 북한의 '다극'과 관련한 인식이 러시아와 완전히 부합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지만, 러시아의 '다극화' 전략에 많은 관심과 동의를 표방하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발전도상나라들의 노력과 관련한 기사에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나라들의 대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2. 북한의 다극화 논리

2022년 이후 북한은 다극화를 '바람'이 아닌 '현실'로 강조하면서, 북한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도래한 것으로, 미국에게는 위기가 지속 확대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1) 북한에게 유리한 환경 도래

북한은 북미대화 실패와 코로나 위기를 겪은 후인 2022년 국제정세가 북한에게 유리하게 변화되었다고 설명한다.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이다. 북한은 2022년의 국제상황을 '다극세계로의 전환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정의하였는데, 내부적으로는 국가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의 채택을 커다란 성과로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인민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외부적으로도 현재의 환경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 것은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쟁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었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중략) 성과는 실로 거대해도 전체 인민들의 아낌 없는 지지성원과 고귀한 피땀, 형언할수 없는 고생과 바꾼것이기에 더욱더 무겁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중략)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이 허리띠를 더 조이고 배를 더 굶어야 하였고 귀중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에 엄청난 생활난이 초래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중략)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에 있습니까, 바쁘면 지금 적들이 바빠났지 우리는 바쁠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의 이 환경하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⁵⁷⁾

2024년에도 북한은 ‘위대한 전환의 시대’, ‘참다운 강국시대’를 맞이하였다고 강조하면서, ‘국력제고’, ‘국익수호’, ‘국위선양’에 있어서 개변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미국의 강권과 전쟁책동에 강경히 맞서나가고있는 강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위상이 비상이 높아지고 영향력도 나날히 확대되고 있다’고 자평하였다.⁵⁸⁾ 하지만 2022년과 달리 이러한 성과를 김정은의 위대성으로 귀결시켰다. 특히 ‘세계의 일극화가 다극화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 김정은의 통찰력, 비범성, 선경지명을 강조하였다.⁵⁹⁾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북한은 ‘정의로운 다극세계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대표적이고 강력한 자주력량으로서의 국제적지위를 확고히 차지’하였다고 정리했다.⁶⁰⁾

둘째, 서방의 ‘신식민주의지배’에 맞선 발전도상나라들의 다극화 실천이다. 북한은 현시기 국제정세에서 주목되는 것으로 ‘신흥경제국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국제관계구도가 다극화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⁶¹⁾ 북한은

57)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시정연설(주체111(2022)년 9월 8일).”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58) 박진향, “무모한 대결광증이 오히려 쇠퇴몰락을 촉진한다.” 『로동신문』, 2024년 12월 28일.

59) 윤철희, 조학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것은 우리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이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30일.

60)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보도.” 『로동신문』, 2024년 12월 29일.

61) “반제투쟁이자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 『로동신문』, 2024년 8월 22일.; 은정철, “제국주의의 락탈구도는 붕괴되고 있다.” 『로동신문』, 2024년 12월 4일.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언급하면서, 2023년 발전도상나라 및 여러 지구들의 활발해진 쌍무적, 다무적 협력에 대해 '제국주의의 일극화 책동에 맞서 다극화된 세계를 수립하려는 자주적지향의 발현'이었다고 평가했다. 즉 국제정세를 '자주가 인류공동의 지향이며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 해'라고 규정하면서,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낡은 국제질서를 고집하면서 저들주도의 일극세계를 확립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치열한 투쟁'이 동반된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를 '리튬삼각주'라고 명명하고 멕시코와 함께 공동화폐를 도입하는 협력예로 들었다.⁶²⁾ 또한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유생산 및 수출국으로서 오펙(OPEC)를 주도하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반세기동안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온 '원유팔라협정'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팔라지배체계의 붕괴'를 앞당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⁶³⁾

2024년 브릭스에 대한 북한의 기대와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 이란, 에티오피아가 브릭스에 정식가입 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세계에 파렬구를 내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브릭스가 '서방주도의 경제질서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주요세력으로 확고히 등장'했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주도의 팔라지배체계는 붕괴의 위기'에 빠진 것으로 설명했다.⁶⁴⁾ 북한은 브릭스 가입국의 확대와 경제, 정치, 안보 등 다방면의 논의로 확장된 변화를 '발전도상나라들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간주하고, 세계 다극화흐름의 힘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⁶⁵⁾ 또한 아르헨티나가 가입하고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아제르바이잔이 가입 신청을, 시리아가 가입 의향을 표시하는 등 약 30여 개 나라가 브릭스에 관심을 표방하고 있다고 전했다.⁶⁶⁾ 유럽내 세르비아의

62) 은정철, "자주화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 『로동신문』 2024년 1월 7일.

63) 박진향, "국제금융분야에서의 새로운 동향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로동신문』 2024년 6월 27일.

64) 김수진, "붕괴의 위기에 빠져드는 팔라지배체계." 『로동신문』 2024년 1월 9일.

65) 김수진, "세계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남남협조." 『로동신문』 2024년 1월 19일.

66) 박진향, "새로운 세계질서수립을 지향하여." 『로동신문』 2024년 3월 25일.; 은정철, "제국주의가 진영대결에 광분해도 자주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15일.; 장철, "세계의 다극화와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은 현시대의 강렬한 지향." 『로동신문』 2024년 11월 4일.; 박진향, "무모한 대결광증이 오히려 쇠퇴몰락을 촉진한다." 『로동신문』 2024년 12월 28일.

가입 가능성도 덧붙였다.⁶⁷⁾ 북한은 브릭스 외에 상하이 협력기구, 유라시아경제 동맹의 성장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환영을 보내고 있다.⁶⁸⁾

셋째, 서방세계의 내부 균열이다. 북한은 발전도상나라들의 협력과 협조가 강화되는 것과 대비하여 서방세계는 균열되면서 미국의 1극지배가 약화되고 있다고 전했다.⁶⁹⁾ 구체적인 근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에 대한 유럽의 태도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을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책동의 산물'이라고 인식한다.⁷⁰⁾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나라들 사이에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유럽나라들이 경제적, 군사적 부담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폴란드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제공을 거부했으며,⁷¹⁾ 벨기에와 프랑스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에 일부 유럽국가들이 동참을 거부하였다고 전하면서,⁷²⁾ 1극 질서의 균열 또는 붕괴를 강조하고 있다.

(2) 미국의 약화와 위협

2023년 북한은 미국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목표로 '반테러전'을 지속하는데 대해 '한갓 개꿈에 불과'하다고 평하고, 실제 미국이 이라크, 소말리아, 수단에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발목이 잡혀있으며, 미국에 대한 공포심이 '아유와 조소'로

67) 리경수, "제국주의는 쇠퇴몰락의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로동신문』 2024년 5월 26일.

68) 본사기자, "높아가는 반제자주적 지향." 『로동신문』 2024년 10월 22일; 김수진, "세계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유라시아경제동맹." 『로동신문』 2024년 10월 24일; 은정철, "자주성을 굳건히 견지하는 것은 새세계질서수립의 근본요구." 『로동신문』 2024년 10월 26일; 장철,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고있는 로씨야." 『로동신문』 2024년 10월 31일; "반제투쟁이자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 『로동신문』 2024년 8월 22일; 은정철, "제국주의의 략탈구도는 붕괴되고 있다." 『로동신문』 2024년 12월 4일; 장철, "평화와 다극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 안전조약기구." 『로동신문』 2024년 12월 15일.

69) 박진향, "변할수없는침략야망의산물-신제국주의론." 『로동신문』 2024년 11월 3일.

70) "반제투쟁이자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 『로동신문』 2024년 8월 22일.

71) 은정철, "서방세계에서 날로 심화되는 대립과 마찰." 『로동신문』 2024년 1월 10일.

72) 리학남, "제국주의가 살판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로동신문』 2024년 4월 11일; 리경수, "제국주의는 쇠퇴몰락의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로동신문』 2024년 5월 26일.

바뀌었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의 '일극세계'가 배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⁷³⁾ 또한 오늘날 미국이 살고있는 세계는 지난날과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신흥국가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군사기술이 점차적으로 전파되고있으며 국제역량관계의 구도가 다극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⁷⁴⁾ 2024년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세워놓은 불공평한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자주화되고 다극화된 새 세계가 수립되는 것은 결코 앞날의 일이 아니라 현실로 펼쳐지는 시대의 주되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⁷⁵⁾ 미국이 내부적으로도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막대한 자금을 군사비로 쏟아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35조 US \$를 넘어섰으며, 대공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⁷⁶⁾

북한은 약화된 미국이 더욱 위협적인 존재라고 강조하며, 군사동맹체계 강화를 대표적인 예로 설명하고 있다.

일극세계가 허물어지고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되어가고있는 현세기에도 《힘에 대한 과신》에 빠져 패권적이며 침략적인 생존방식, 대외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다.⁷⁷⁾

구체적으로 미국이 군사전략적 중심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정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진행하는 데 주목하였다. 『로동신문』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 국가의 전략회담인 쿼드(Quad)와 미국, 영국, 호주 3개 국가의 안보협력체인 오크스(AUKUS)를 주시하고 있다.⁷⁸⁾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해상훈련과 핵기술 이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⁷⁹⁾ 북한은 미국과 영국이

73) "전쟁죄악으로 가득찬 미국의 파묻은 역사를 파헤친다." 『로동신문』 2023년 7월 7일; "미국이 세계의 지배자로 행세하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로동신문』 2024년 8월 17일.

74)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근원 및 현 실태와 그 해독성 2." 『로동신문』 2023년 10월 15일.

75) "다극세계의 수립을 지향하여." 『로동신문』 2024년 7월 30일.

76) "미국이 세계의 지배자로 행세하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로동신문』 2024년 8월 17일.

77) "(조선중앙통신사론평) 미국이 더 이상 《식도락》을 누리게 해서는 안된다." 『로동신문』 2024년 3월 1일.

78) 은정철 "지주성을 굳건히 견지하는 것은 새세계질서수립의 근본요구." 『로동신문』 2024년 10월 26일.

79) 리학남, "제국주의의 가증되는 침략책동은 몰락을 예감한 단말마적 발악이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3일.

호주 해군에 8척의 공격형 핵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에 대해 '미국이 영국이 아닌 타국과 핵동력기술을 공유한 첫 사례'라며, 타국에 핵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관례에 없는 핵심적인 기술과 무기들을 이전하는 것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⁸⁰⁾

특히 북한은 '냉전시대의 유물'인 나토의 확장을 주시하면서, 나토 동맹국들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군사적 협력을 진행하는 것을 주목하였다.⁸¹⁾ 북한은 나토의 활동영역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⁸²⁾ 일례로 미국이 몇 해 전부터 나토와 함께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글로벌 센티넬(Global Sentinel)'에 참가한 것과 한미일이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을 '다중적인 전쟁진영구조'의 형성으로 평가했다.⁸³⁾ 또한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 '아시아태평양의 나토화'라는 표현과 함께, 나토, 일본, 호주, 한국 사이에 첨단무장 장비가 공동으로 개발되고,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점을 주목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북한과 중국이 포위와 견제의 첫째 목표라고 주장하였다.⁸⁴⁾ 2024년 10월 3일 나토가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규탄하자, 북한은 2024년 10월 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나토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해 '비극적인 후과'로 강경대응하면서, 북한이 '국제적 정의에 기초한 다극화된 세계건설을 위한 중대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⁸⁵⁾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한 핵동맹'으로 변이되었으며, 한미일 군사협조를 통해 '침략전쟁'을 속달하고 있다고 평했다.⁸⁶⁾

80)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근원 및 현 실태와 그 해독성 2." 『로동신문』 2023년 10월 15일.

81) 장철, "반제자주는 현시대의 기본흐름이다." 『로동신문』 2024년 11월 21일.; 박진향,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평화)는 곧 대결과 전쟁이다." 『로동신문』 2024년 12월 26일.

82) "반제투쟁이자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 『로동신문』 2024년 8월 22일.

83) "《〈확장억제〉론은 미국의 패권을 위한 대결각본(3)》 추종세력을 총동원하려는 단말마적발악의 산물." 『로동신문』 2024년 8월 18일.

84) 은정철, "제국주의가 진영대결에 광분해도 자주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15일.

85) "(외무성대변인 성명) 미국의 극단한 이중론리, 이중기준이 키워낸 기형아 나토는 하루빨리 력사의 오물장에 처박혀야 한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7일.

86) 박진향,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평화)는 곧 대결과 전쟁이다." 『로동신문』 2024년 12월 26일.

3. 북한의 전략: 국익중심의 진영대결

북한은 2023년을 시작하면서 국제질서가 '신랭전'체제로 전환되고 '다극화' 흐름이 가속화되는데 맞게 대외사업원칙을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한 '강대강', '정면승부'로 선포하였다.⁸⁷⁾ 북한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북한이 인식하는 '신랭전'체제이며, '다극화'와의 연결 논리이다. 첫째, 북한은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신랭전' 상황으로 연결하면서, 이를 '21세의 비극'이라 평가하고, '신랭전'과 과거의 '랭전'을 구별하였다. 구체적으로 '신랭전'을 '지정학적 대결'로 정의하고, 그 목적을 '일극세계화'의 고수라고 정의하였다.

오늘의 신랭전은 과거의 랭전과 엄연히 구별된다. 지난 세계 랭전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불상용적인 리념적대립에 근원을 두고있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주권과 국익을 첫 자리에 놓고 자기식의 다종다양한 발전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오늘날의 랭전은 지정학적대결로 되고 있다. 이것은 신랭전의 본질에 있어서 그 어떤 리념적범위나 제한된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범위에서 낡은 질서를 고집하는 세력과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광범한 나라들과의 대결임을 발해준다.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났던 과거의 랭전 시대를 되살려 낡은 시대를 부지해보려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의 발악적망동으로 하여 전지구적범위에서 신랭전구도가 고착되고 국제적인 안보환경이 엄중히 훼손되고 있는 것은 21세기의 비극이다. 신랭전의 총적목적은 다극화를 지향하는 현시대의 흐름을 가로막고 제국주의주도의 일극세계화를 고수해보려는데 있다.⁸⁸⁾

둘째, 북한은 미국이 자국의 약화를 감추기 위해 진영대결을 유도하면서, '신랭전'체제를 구축한다고 인식하고 있다.⁸⁹⁾ 미국이 만드는 진영은 '민주주의

8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1월 1일.

88) 은정철, "제국주의가 진영대결에 광분해도 자주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15일.

89) 은정철, "자주성을 굳건히 견지하는 것은 새세계질서수립의 근본요구." 『로동신문』 2024년 10월 26일.

국가' 대 '비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 국가'란 미국의 말을 듣는 나라이고, '비민주주의 국가'란 미국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거나 엇서는 나라라는 것이다.⁹⁰⁾ 북한은 미국이 '사회주의' '반제자주' 나라들에게 '독재국가'라는 감투를 씌우면서 국제사회를 둘로 분할하고 대결을 고취하면서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일극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⁹¹⁾

미국이 한사코 진영대결을 꾀하는 것은 날로 장성강화되는 반제자주력량을 저 혼자 힘으로는 결코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이다.⁹²⁾

일례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위협 국가'로 지목한다고 주장한다.⁹³⁾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한다.⁹⁴⁾ 하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위협'은 미국의 '일극화'를 반대하는 즉 '다극화'를 지향하는 세력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의 일극화 전략을 지지하고 특히 동북아에서 나토를 이용하여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평한다. 즉, 남북한의 대결도 다극화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진영논리로 귀결되고 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북한은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바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을 강조하면서, 남한에 대해 '미국의 동맹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는데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로 간접 분류했다.⁹⁵⁾ 하지만 2024년 말에는 남한에 대해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로 전략'한 나라라고 직접 지목했다. 그리고 '미일한동맹이 침략적인 핵군사블럭으로 팽창되고 대한민국

90) 장철, "미국의(민주주의)타령은 패권유지를 위한 계략이다." 『로동신문』 2024년 4월 27일; 리학남, "제국주의의 가증되는 침략책동은 몰락을 예감한 단말마적 발악이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3일.

91) 장철, "세계지배를 노린 제국주의의 정치사상적도구-〈자유민주주의〉." 『로동신문』 2024년 11월 19일.

92) 장철, "미국의(민주주의)타령은 패권유지를 위한 계략이다." 『로동신문』 2024년 4월 27일.

93) 박진향, "미국의 여론조작행위는 오히려 세계를 각성시킬 뿐이다." 『로동신문』 2024년 5월 18일.

94) 리경수, "제국주의는 쇠퇴몰락의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로동신문』 2024년 5월 26일.

9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1월 1일.

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로 전략된 현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남북한 대결의 필연성을 부연했다.⁹⁶⁾ 따라서 남북한은 냉전시기와 다른 진영대결 속에 휘말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나가며

북한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매우 복잡다단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맞이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⁹⁷⁾ '위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극화를 지향하는 세력과 일극지배를 유지하려는 세력의 갈등이다. 역사적 흐름으로 자주세력에 의해 다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흐름을 막아보려는 제국주의 세력으로 인해 갈등이 지속·확대되면서 '신냉전'체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냉전'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몇몇 국가들의 현상이 아니라, 국제정세 전반의 다극화 흐름 속에서 미국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위기형태라는 것이다.

북한은 다극화를 '미국', '제국', '서방', '신식민지'에 대항한 '자주', '민주', '공정', '필연'으로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의 다극화는 '국제관계의 민주화'로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이다.⁹⁸⁾ 반대로 일극화는 '주권존중과 평등의 리념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수립의 근간을 깨끗이 파괴해버리는 체제'라고 정의하며, 만일 세계가 일극화로 지속된다면, '세계 모든 나라들에 차례지는 운명은 미국이라는 일개 패권국가의 노예로 전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⁹⁹⁾ 따라서 북한은 다극화를 지향하고, 다극화를 지향하는 국가들 혹은 기구들과 협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북한은 남한을 다극화에 반대하는 직접적인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4년 북한은 자국을 다극세계를 건설하는 '강

96)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4년 12월 29일.

97) "자주와 정의에로 향한 력사의 격류는 되돌려세울수 없다." 『로동신문』 2024년 8월 29일.

98) 장철, "미국의《민주주의》타령은 패권유지를 위한 계략이다." 『로동신문』 2024년 4월 27일.

99) 박진향, "세계는 다극화으로 더욱 활력있게 나아가고 있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25일.

력한 역량'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반공전초기지로 전략'했다고 평가하며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을 천명했다. 즉, 남한이 미국의 일극화 진영에 속해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¹⁰⁰⁾

따라서 현재 북한은 북중러 북방삼각관계 대 한미일 남방삼각관계라는 단순한 대립이 아닌, 다극화에 유의한 대외정책과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만약 2023년 말 등장한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이 북한의 '다극'화와 '신랭전' 담론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향후 대한민국은 남북관계라는 개인전을 넘어 단체전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분석의 부재와 의지의 과잉'으로 한반도가 현대사에서 두 번의 위기를 겪었다는 한학자의 반성¹⁰¹⁾을 기억하며, 현재 다극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략이 '강대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분석의 부족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적 위기 과장' 속에 함몰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00)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보도." 『로동신문』 2024년 12월 29일.

101) 백승욱, 『연결된 위기_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알타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울: 생각의 힘, 2023, p. 11.

참고문헌

1. 남한문헌

- 그레이엄 앨리스 지음 · 정혜운 역, 『예정된 전쟁』, 서울: 세종서적, 2018.
- 김관욱, “중국의 대미균형을 위한 다극화전략: 소프트 파워, 다자주의,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31권, 2010.
- 김광린, “러시아의 21세기 정책구상: 강력한 러시아와 다극화 세계질서의 구축.” 『신아시아』 제7권 2호, 2000.
- 김연철,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4호, 2023.
- 민지영, “러시아의 다극주의 전략과 북·러 관계.” 『외국학연구』 제73집, 2025.
- 박영택, “남방 및 북방삼각관계의 구조화 진행과 한반도 안보 전략.” 『한국국가전략』 제4권 2호, 2019.
- 백승욱, 『연결된 위기_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알타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울: 생각의 힘, 2023.
- 백준기, 『미국의 세기 이후_신냉전 너머의 세계 강대국들의 귀환』, 서울: 비블리오테카, 2024.
- 이동률, “중국 2024년 양화: 체제 강화, 기술 자강, 다극화.” 『EAI 이슈브리핑』 동아시아 연구, 2024.
- 이재영·홍민·현승수,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24.
- 이진현, “다극 세계질서의 주체로서의 문명국가와 지정학의 문제: 러시아의 이론과 현실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34권 2호, 2024.
- 차태서, “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탈단극 시대 한반도 문제의 전환과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동.” 『국제관계연구』 제28권 1호, 2023.
- _____, 『30년의 위기_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질서』,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4.
- 한석희, “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외교,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 『국제지역연구』 제11권 1호, 2007.
- 황상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 삼각 공조의 유인과 한계.” 『아시아연구』 제27권 3호, 2024.

2. 북한문헌

1) 논문

- 계문해, “현시기 《브릭스》에 의한 국제경제관계의 다극화추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 경제학)』 3호, 2012.
- 김형우, “랭전종식후 다극화되고있는 세계정세의 중요특징.” 『근로자』 5호, 1995.
- 리태성, “새 세기 세계의 다극화과정속에서 강화되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 『사회과학원학보』 2호, 2019.
- 홍진철, “랭전종식후 국제관계의 다극화추세에 대한 분석.” 『정치법률연구』 3호, 2012.
- 황한욱, “다극화는 오늘 세계경제발전의 기본추이.” 『사회과학원학보』 2호, 2015.

2) 로동신문

- 김남혁, “세계의 다극화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로동신문』 2000년 9월 5일.
- 김수진, “붕괴의 위기에 빠져드는 딸라지배체계.” 『로동신문』 2024년 1월 9일.
- _____, “세계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남남협조.” 『로동신문』 2024년 1월 19일.
- _____, “세계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유라시아경제동맹.” 『로동신문』 2024년 10월 24일.
- 김영남, “다극화를 위한 유럽동맹의 움직임.” 『로동신문』 2006년 4월 10일.
-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주체111(2022)년 9월 8일).”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 김종손, “세계가 다극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막을수 없는 추세.” 『로동신문』 2006년 3월 4일.
- 리경수, “제국주의는 쇠퇴몰락의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로동신문』 2024년 5월 26일.
- 리학남, “제국주의가 살판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로동신문』 2024년 4월 11일.
- _____, “제국주의의 가증되는 침략책동은 몰락을 예감한 단말마적 발악이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3일.
- 리현도, “〈론설〉 세계의 다극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추세.” 『로동신문』 2008년 10월 12일.
- 박진향, “세계는 다극화어로 더욱 활력있게 나아가고 있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25일.
- _____, “새로운 세계질서수립을 지향하여.” 『로동신문』 2024년 3월 25일.
- _____, “미국의 여론조작행위는 오히려 세계를 각성시킬 뿐이다.” 『로동신문』 2024년

5월 18일.

_____, “국제금융분야에서의 새로운 동향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로동신문』 2024년 6월 27일.

_____, “변할수없는침략야망의산물-신제국주의론.” 『로동신문』 2024년 11월 3일.

_____,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평화》는 곧 대결과 전쟁이다.” 『로동신문』 2024년 12월 26일.

_____, “무모한 대결광풍이 오하려 쇠퇴몰락을 촉진한다.” 『로동신문』 2024년 12월 28일.

배금희,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하여.” 『로동신문』 2011년 1월 19일.

백문규, “〈론설〉 세계는 다극화예로 나아가고 있다.” 『로동신문』 2010년 1월 10일.

본사기자, “쌍무관계발전과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하여.” 『로동신문』 2004년 5월 24일.

_____, “관심을 모으는 경제의 다극화추세.” 『로동신문』 2012년 3월 5일.

_____, “[정세론해설] 적극화되고 있는 다극세계건설노력.” 『로동신문』 2015년 7월 21일.

_____, “높아가는 반제자주적 지향.” 『로동신문』 2024년 10월 22일.

윤철희, 조학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것은 우리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이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30일.

원경호, “9.11사건 후의 국제정세흐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9.11사건》과 아프가니스탄전쟁, 《반테로전》확대전략, 국제적인 반미열풍과 다극세계화의 추세).” 『로동신문』 2002년 9월 19일.

은정철, “자주화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 『로동신문』 2024년 1월 7일.

_____, “서방세계에서 날로 심화되는 대립과 마찰.” 『로동신문』 2024년 1월 10일.

_____, “제국주의가 진영대결에 광분해도 자주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15일.

_____, “자주성을 굳건히 견지하는 것은 새세계질서수립의 근본요구.” 『로동신문』 2024년 10월 26일.

_____, “제국주의의 략탈구도는 붕괴되고 있다.” 『로동신문』 2024년 12월 4일.

장 철, “미국의《민주주의》타령은 패권유지를 위한 계략이다.” 『로동신문』 2024년 4월 27일.

_____,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고있는 로씨야.” 『로동신문』 2024년 10월 31일.

_____, “세계의 다극화와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은 현시대의 강렬한 지향.” 『로동신문』 2024년 11월 4일.

_____, “세계지배를 노린 제국주의의 정치사상적도구-《자유민주주의》.” 『로동신문』 2024년 11월 19일.

_____, “반제자주는 현시대의 기본흐름이다.” 『로동신문』 2024년 11월 21일.

_____, “평화와 다극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안전조약기구.” 『로동신문』 2024년 12월 15일.

- 전영희, “민족화폐리용을 통해 본 금융체계의 다극화.” 『로동신문』 2013년 11월 19일.
- 조선중앙통신, “남아프리카 세계의 다극화를 주장.” 『로동신문』 2003년 10월 14일.
- _____, “다극화된 새 세계질서의 수립을 위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있는 로씨야와 중국.” 『로동신문』 2005년 12월 23일.
- _____, “반제자주의 기치높이 다극화를 지향해 나가는 아프리카.” 『로동신문』 2024년 11월 24일.
- 조성철,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로동신문』 2006년 7월 3일.
- _____, “〈론설〉 세계의 다극화는 막을수 없는 국제적 흐름.” 『로동신문』 2008년 2월 22일.
- _____, “다극화추세를 반영한 움직임.” 『로동신문』 2010년 8월 8일.
- 조택범, “다극화를 지향하는 유럽, 그를 막아나서는 미국.” 『로동신문』 2004년 1월 10일.
- “(외무성대변인 성명) 미국의 극단한 이중론리, 이중기준이 키워낸 기형아 나토는 하루빨리 력사의 오물장에 처박혀야 한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7일.
- “(조선중앙통신사론편) 미국이 더 이상 《식도락》을 누리게 해서 안된다.” 『로동신문』 2024년 3월 1일.
- “《〈확장억제〉론은 미국의 패권을 위한 대결각본(3)》 추종세력을 총동원하려는 단말마적발악의 산물.” 『로동신문』 2024년 8월 18일.
- “꾸바가 베네수엘라의 다극세계 창설구상을 지지.” 『로동신문』 2000년 10월 30일.
- “다극세계의 수립을 지향하여.” 『로동신문』 2024년 7월 30일.
-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근원 및 현 실태와 그 해독성 2.” 『로동신문』 2023년 10월 15일.
- “미국이 세계의 지배자로 행세하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로동신문』 2024년 8월 17일.
- “반제투쟁이자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 『로동신문』 2024년 8월 22일.
- “세계는 다극화어로 더욱 활력있게 나아가고 있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25일.
- “세계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남남협조.” 『로동신문』 2024년 1월 19일.
- “세계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브릭스.” 『로동신문』 2011년 4월 19일.
- “세계의 다극화와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은 현시대의 강렬한 지향.” 『로동신문』 2024년 11월 4일.
- “자주와 정의어로 향한 력사의 격류는 되돌려세울수 없다.” 『로동신문』 2024년 8월 29일.
- “전쟁죄악으로 가득찬 미국의 피문은 력사를 파헤친다.” 『로동신문』 2023년 7월 7일.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보도.” 『로동신문』 2023년 1월 1일.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보도.” 『로동신문』 2024년 12월 29일.

Abstract

North Korea's perception of Post-Unipolar: Multipolarization and the New Cold War

Park, Ah reum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post-unipolar perspective and reexamines its recent strategies. North Korea's desire for multipolarity, which emerge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has persisted and expanded since the 2000s through the "Embryonic Period" (2000–2007), "Growth Period" (2008–2015), and "Maturity Period" (2022–2024). North Korea asserts multipolarity as a "lawful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and explains that multipolarity has become a "reality" since 2022, creating a favorable environment for North Korea. Through this, North Korea is presumed to be formulating its foreign policy amidst the confrontation between forces seeking to maintain a unipolar order and those promoting multipolarity, and to be exploring new inter-Korean relations.

Keywords: North Korea, post-unipolar, multipolarity, multipolarization, new Cold War

투고일: 2025년 12월 27일, 심사일: 2026년 1월 31일, 게재확정일: 2026년 2월 4일